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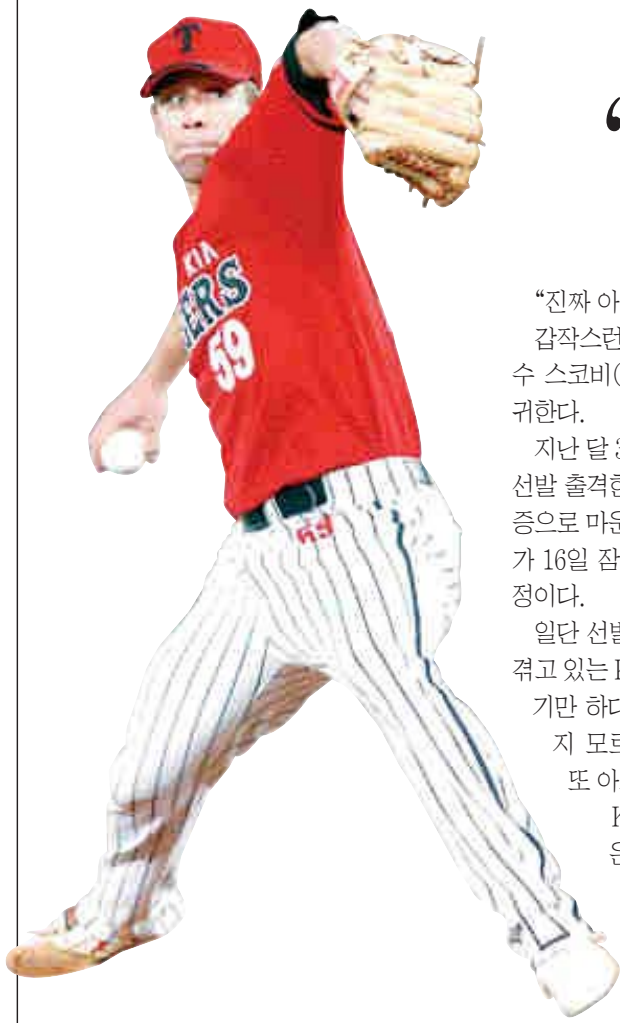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광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스코비, 이젠 아프지 마!”

“진짜 아프거나?”

갑작스런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용병 투수 스코비(29·KIA·사진)가 16일만에 복귀한다.

지난 달 31일 문학 SK전 이후 16일만의 선발 출격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깨통증으로 마운드를 비웠던 KIA 선발 스코비가 16일 잠실 두산전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일단 선발 마운드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IA로선 스코비의 합류가 반갑기만 하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쓸쓸하다. 언제 또 아프다고 할 지도 걱정이다.

KIA는 지난 5월 어깨부상을 입은 에서튼의 대체 용병으로 스코비를 영입했다. 스코비는 합류와 동시에 ‘나홀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던 윤석민과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

### 어깨 통증 호소 16일만에 복귀

### KIA 탈꼴찌 목표에 활력 기대

침몰 직전의 KIA호에 큰 희망을 줬다. KIA는 7월 들어 윤석민-스코비의 안정적 피칭과 이용규, 김중국, 이현근, 장성호, 최희섭 등의 활약에 한껏 고무됐고, 서머리그 우승을 자신하기도 했다. 스코비도 기대 이상으로 잘 던졌다. 서머리그 개막전인 7월 14일 LG전에서 승리투수가 됐고, 지난달 31일 SK전까지 4경기에서 3승(1패)을 올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KIA의 서머리그 우승은 희망이 아닌 현실로 보였다. 하지만 스코비는 8월 들어 어깨통증을 호소했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구단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는 등 어깨 점검에 나섰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코비는 “아프다”며 로테이션을 이탈했다. 스코비마저 빠진 선발 마운드로서 윤석민이 홀로 버티기는 힘들었고, 부라부라 문현정 등 신인급 선수들을 선발로 들렸지만 역부족이었다. KIA는 결국 8월을 3승5패로 마감, 우승의 꿈과 함께 포스트 시즌 진출의 희망도 날아갔다.

이제 KIA는 마지막 목표를 탈꼴찌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A는 14일 현재 7위 현대와 무려 6게임차 꼴찌다.

스코비의 합류로 마운드의 안정감을 되찾은 KIA가 시즌 막판 가장 큰 수모인 꼴찌탈출에 성공할지 용병 스코비의 어깨에 관심이 쏠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뒤로 가는 KIA 4연패 허덕

### 김중국 솔로포 불구 두산에 강우콜드 패



‘꼴찌탈출’이 시즌 목표가 돼 버린 호랑이 군단이 4연패의 늪에 빠졌다.

KIA는 15일 잠실구장에서 계속된 2007 프로야구 두산전에서 김중국의 솔로포에도 불구하고 1-5로 뒤진 7회 들어 비가 쏟아져 강우콜드게임패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KIA는 39승 60패 1무를 기록, 올 시즌 8개 구단 가운데 첫 60패의 고지에 오르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선발로 나선 KIA 에이스 윤석민은 5이닝 동안 8피안타, 1볼넷, 5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즌 15패(6승)째를 기록했다. 2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낸 윤석민은 3회 1사 1, 3루에서 상대 이종욱에게 희생플라이를 내주며 첫 실점했다.

윤석민은 4회를 타자 4명으로 가볍게 넘겨내며 안정감을 되찾은 모습을 보였지만, 5회 들어 장단 4안타, 4실점하며 결국 무너졌다.

윤석민은 5회 1사 후 상대 이대수와 채상병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한 뒤 2사 1, 2루에서 상대 이종욱에게 1타점 적시안타를 허용한데 이어 김현수와 고영민에게 연속 2루타를 얻어맞고 3실점, 마운드를 손영민에게 넘겼다.

반면 두산 특급 선발 리오스는 7이닝 동안 KIA 타선을 3피안타, 1홈런, 1실점으로 잘 틀어 막아 시즌 15승(5패)째를 챙겼고, 다승부로 단독 1위의 자리를 지켰다.

KIA 유격수 김중국은 7회 첫 타자로 나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짜리 솔로 홈런을 작렬, 팀의 ‘영봉패’ 수모를 막아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병규 또 선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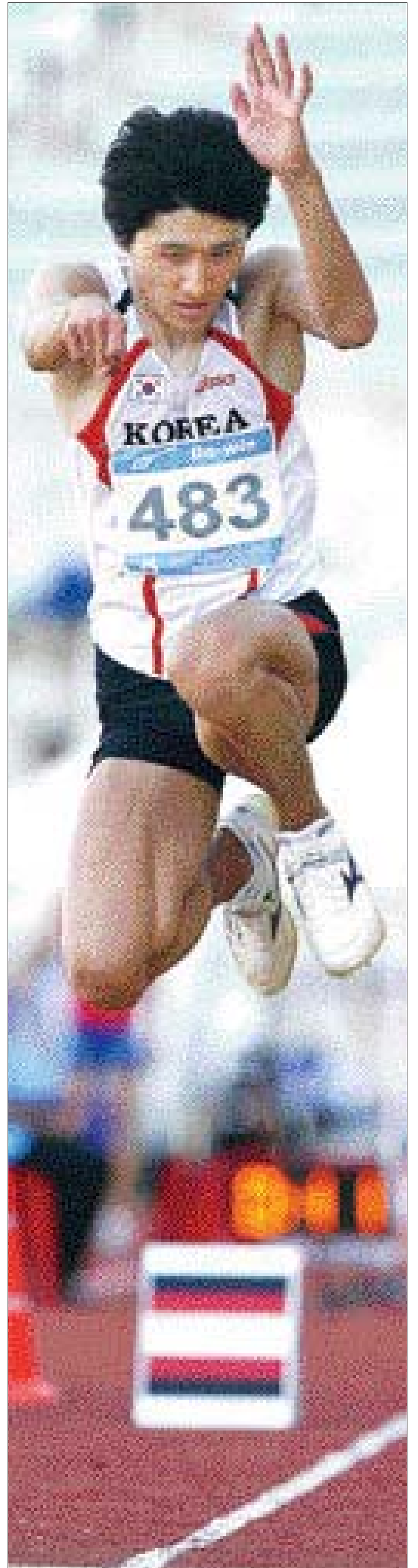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또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

이병규는 15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병규의 포지션인 중견수는 나가무라 고지가 대신 맡았다.

이병규는 전날 한신 타이거스와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1회 이슬픈 수비로 상대 타자 아카호시 노리히로의 1루타를 2루타로 만들어줬다는 지적을 일본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태국 방콕 타마삿대학교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세단 뛰기 결승에서 한국 김덕현(조선대)이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 조선대 김덕현 세단뛰기 ‘금’

## 유연성·김민정 배드민턴 혼복 우승



한국 육상의 기대주 김덕현(25, 조선대)이 2007 하계유니버시아드 육상 세단뛰기에서 금메달을 땀다.

김덕현은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태국 타마삿대학교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세단뛰기 결승에서 17m02cm를 뛰어 우크라이나의 쿠즈니초프 빅토르(16m94cm)를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육상이 유니버시아드 세단뛰기에서 금메달을 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시기를 16m34cm로 시작한 김덕현은 갈수록 좋은 기록을 내더니 4차 시기에서 결국 17m02cm를 뛰어 우승을 결정지었다.

지난 해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17m07cm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육상의 희망

으로 떠오른 김덕현은 이로써 지난 해 도하 아시아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달랬다.

15일 열린 대회에선 한국 배드민턴이 혼합복식에서 강호 대만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땀다.

유연성(원광대·21)-김민정(21·군산대) 조는 이날 오후 태국 타마삿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혼합복식 결승에서 대만을 2-1(21-19 13-21 21-17)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첫 세트에서 기선을 잡은 한국은 대만의 반격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세트 들어 김민정의 노련한 네트플레이와 유연성의 강력한 스매시가 어우러져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남자농구대표팀은 일본과 8강전에서 선전했지만 아쉽게 71-72로 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힘·스피드 늘어 자신감 커졌다”

### ■ 김덕현 일문일답

다음은 김덕현과 일문일답.

-우승 소감은.

▲정말 기쁘다. 하지만 만족스런 기록은 아니다. 더 잘 될 수 있었다.

-더운 날씨에서 뛰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 해 도하아시아게임 때보다 더운 날씨가 더워서 머리가 어지러웠고 땀을 많이 흘렸다. 하지만 컨디션 조절을 잘해 괜찮았다.

-지난 해보다 어떤 점이 좋아졌나.

▲원래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훈련을 해왔다. 작년보다 순발력이 많이 좋아졌고 스피드도 조금 향상됐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다. 앞으로 시합을 할수록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앞으로 기술 연습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자세도 아직 불안정한데 바로 잡아야 한다.

-앞으로 목표는.

▲이달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하고 싶다.

### 광주일고·순천효천고

### 봉황대기야구 16강행

광주제일고와 순천효천고가 제3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에 나란히 진출했다.

광주제일고는 15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2회전에서 투·타의 조화를 이루며 강호 신일고를 3-0으로 완파했다.

광주제일고는 1회 선두타자 서건창의 중견수 앞 안타와 허경민의 보내기 번트를 묶어 만든 1사 2루서 3번타자 한희준의 좌익선상 2루타로 첫 득점에 성공했다.

광주제일고는 3회에도 서건창의 안타와 허경민의 보내기 번트, 한희준의 우중간 2루타로 1점을 추가했고, 7회엔 9번타자 손명기의 우익선상 2루타와 보내기 번트에 이은 허경민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보태며 승기를 굳혔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순천 효천고는 봉황대기야구 16강을 맞아 4-3, 짜릿한 1점차 역전승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

### 김병현 1회 강판 굴욕

김병현(28·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이 이달 초까지 몸담았던 친정팀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이적 후 첫 승에 도전했지만 최악의 피칭으로 패전 명예를 썼다.

김병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돌핀스타디움에서 열린 플로리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했지만 1회 아웃카운트 1개만 잡고 안타 4개와 볼넷, 실책 각 1개로 4실점(3자책점)했다.

팀이 결국 5-14로 지면서 김병현은 시즌 6패(6승)째를 안았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종전 4.96에서 5.23으로 치솟았다. 투구 수는 17개였다.

0.1이닝 강판은 김병현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기록한 최소이닝 투구 불명예다.



15일 태국 방콕 타마삿대학교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배드민턴 남녀혼합복식 결승에서 한국 유연성과 김민정이 대만팀을 상대로 활기찬 공격을 하고 있다. 유연성과 김민정은 대만팀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